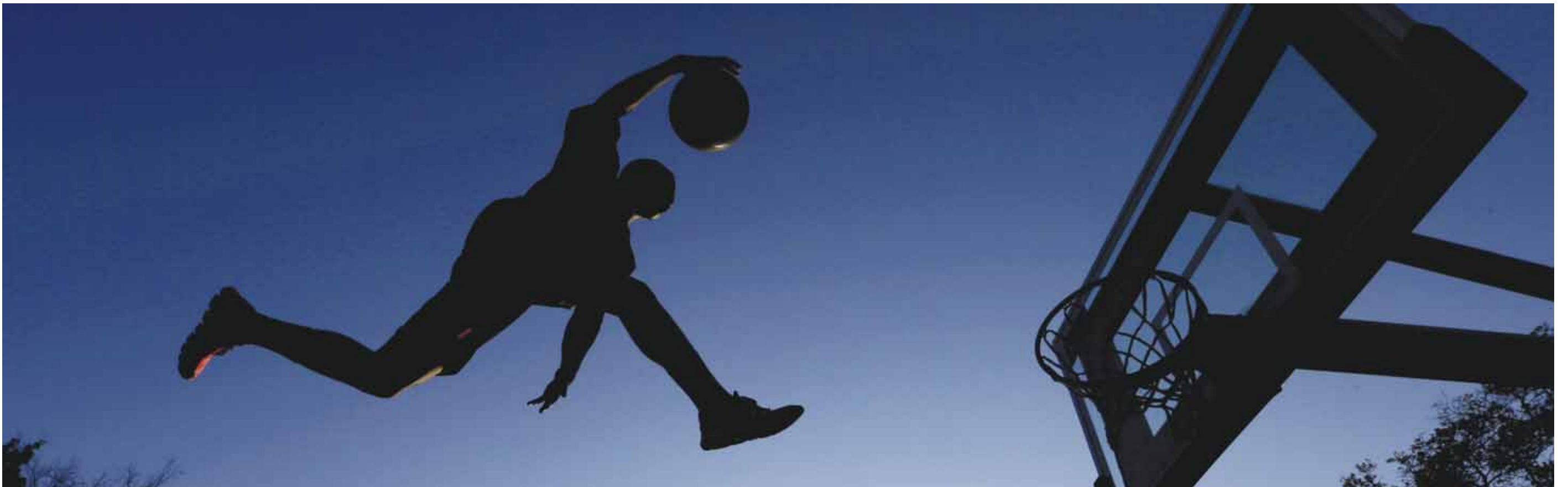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dasty.co.kr 080)320-7700



창공 가르는 '덩크 샷' 휴스턴 로켓츠 덩크팀의 클레이튼 앤더슨이 20일(현지시각) 도요타 센터 외부에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와의 미국프로농구(NBA) 플레이오프 개막전을 기념하는 덩크샷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동열 "5할 목표" ... 팬들 "감독이 할소리냐"



선수 부상 핑계 올해도 '반타작 타령'에 사기 저하
공격본능 보여주고 속수무책 마운드 재건 나서라

'5할론'이 KIA의 발을 묶고 있다. KIA 타이거즈가 휴식을 만났다. 가라앉은 덕아웃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천금 같은 휴식이자 벤치의 위기 관리 능력을 시험받게 될 휴식이다. 매년 빠지지 않던 우승후보 KIA는 올 시즌 하위권 후보로 좁혔다. 에이스 윤석민의 유출과 부실했던 육성·부상 대책 등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감안된 평가다. 매년 기대감으로 시즌을 내다보던 팬들도 달랐다. 현실적인 체질 개선과 미래를 보여줄 바라는 시선이 많았다. 초반은 만만치 않은 뒷심 속 기대이상이었다. 하지만 날뛰는 선발에 팀이 흔들리면서 '선동열호'

의 위기 관리 능력에 시선이 쏠린다. KIA는 8승11패(승률 0.421)로 6위에 위치해 있다. 우리보다는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시즌 전체를 좌우할 큰 문제점들이 눈에 띈다. 매년 반복되는 부상에 선 감독은 '5할 승률'을 입버릇처럼 얘기해 왔다. 고공행진을 하던 지난해 초반에도 윤석민·김진우의 부상 복귀 전까지 5할을 목표로 하겠다고 언급해 팬들의 원성을 샀다. 올 시즌에도 5할이 언급되고 있다. 이번에도 전제는 김진우·심동섭 등 부상병들의 복귀다. 하지만 부상은 어느 팀이나 안고 가는 문제이고 예측불허의 변수다. 현재 전력과 상황에서 돌파구

를 찾기보다는 불확실한 변수에 치중한 운영이 이뤄지면서 제자리 걸음이다. 또 사령탑이 먼저 한발 물러서게 되면 전체적인 덕아웃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흔들리는 전략도 고민거리다. 선 감독은 '선수비'를 강조하면서 예고했던 신·구경정과 달리 베테랑 포수로 시즌을 출발했다. 그러나 '선수비' 전략과 달리 양현종·김광현 두 특급 좌완 맞대결이 전개된 18일, 수비전략에서 밀리며 팽팽하던 투수전은 일방적인 난타전으로 변했다. 올 시즌은 선 감독이 고향에서 보내는 3번째 해이자 임기 마지막 해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선동

열호'의 확실한 색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구단과 팬들이 가장 기대했던 '마운드 재건'이 큰 숙제다. 바람과 달리 KIA 마운드는 뒤로 가고 있다. 여전한 마무리 고민에 유일하게 외국인 마무리 투수가 투입됐고, 임시방편으로 최향남·김태영·최영필·김병현 등 베테랑을 불러들였다. 박경태의 부진으로 기회를 얻은 한승혁이 그나마 위안. 박이닝이 많다는 것도 큰 고민이다. 투수진이 약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이닝이 많다. 한 이닝에서 5점 이상을 내준 경우가 5번, 4실점을 한 이닝도 5번 있었다. 11일 롯데전에서 8-20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KIA는 18일 SK전에서는 7회에만 8실점을 하며 0-11, 첫 영봉패를 당했다. 승패를 떠나 투·타의 불균형 심화로 팀의 전체적인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재정비의 시간이 주어졌다. 부상병들의 복귀도 가시화되고 있다. '5할론'에서 벗어나 타이거즈의 공격 본능과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비탄의 대한민국 호투로 위로해줘"

류현진, 내일 필라델피아전 4승 도전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를 넘어 전국구 에이스로 도약 중인 류현진(27)이 23일(이하 한국시각) 홈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해 시즌 4승과 홈 첫승을 올릴 예정이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21일 류현진을 23일 필라델피아전 선발로 예상했다. 류현진은 올해 5차례 선발등판해 28이닝을 소화하며 3승 1패 평균자책점 1.93을 기록했다. 3승은 모두 원정 경기에서 거뒀고, 원정에서 26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펼쳤다. 하지만 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홈경기에서는 2이닝 8피안타 8실점(6자책)으로, 메이저리그 데뷔 후 가장 적은 이닝을 소화하며 한 경기 최다 실점을 했다. 당시 류현진은 4일 휴식 후 마운드에 올랐다. 이번에도 4일 휴식 후 홈에서 선발 등판하는 다소 팽팽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류현진은 2013년 4월 쉬고 나선 경기에서 5승 4패 평균자책점 3.26을 기록했고, 5일 휴식 후 등판했을 때는 7승 1패 평균자책점 2.12로 호투했다. 올해도 5일 혹은 그 이상 쉬고 나온 4경기는 모두 무실점을 기록했지만, 5일 샌프란시스코와 경기에서는 무너졌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2년차' 류현진은 4일 휴식 후 등판에도 적응하고 있다. 류현진은 지난해 필라델피아와 6월 30일 홈에서 한 차례 맞붙어 7이닝 7피안타 2실점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진출 전 류현진이 '달고 싶은 투수'로 꼽은 클리프 리(7이닝 4피안타 3실점)와 선발 맞대결해 팽팽한 승부를 펼쳤다. 이날 두 원소 투수는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다. 당시 류현진은 체이스 어틀리에게 연타석 홈런을 내줬다. 올해 28이닝 동안 단 한 개의 홈런도 허용하지 않은 류현진과 어틀리의 재대결은 이날 경기의 관전 포인트다. 어틀리는 21일까지 16경기 타율 0.406, 3홈런, 12타점으로 활약 중이다.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1위이고, 출루율(0.451)은 내셔널리그 3위, 장타율(0.672)은 리그 2위다. /연합뉴스

숨고르는 호랑이군단, 마운드 재정비 나서

프로야구 전망대

LG와 운명의 주말 3연전 심동섭·박지훈 등 복귀 임박
거포본능 꿈틀...6개 홈런 더하면 팀 두번째 3300 홈런

'호랑이 군단'이 재정비를 하고 운명의 주말을 맞는다. KIA 타이거즈에게 시즌 첫 휴식이 찾아왔다. 주중 경기 없이 전력을 재정비 하는 KIA는 주말 잠실로 가 LG와 3연전을 벌인다. 복도가 실이 많은 지난 한 주였다. 베테랑 홈런이 16일 한화전에서 2이닝 5실점으로 조기 강판됐고, 부활 조짐을 보이던 송은범은 두 경기 연속 실망스러운 피칭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환상적인 투수로 SK 김광현과 맞섰던 양현종도 야수진의 수비 실수 속 급격하게 무너지며 패전투수가 됐다. 막내 한승혁의 깜짝 호투가 없었다면 길고 긴 연패에 빠질 수 있었던 아찔한 한 주였다. 부상병도 추가됐다. 김주찬이 발바닥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고, 이범호는 수비 도중 옆구리

근육 부상을 당하면서 자리를 비웠다. 공격의 물꼬를 텃던 이대형이 3경기 연속 침묵을 하며 상승세가 꺾였고, 4번 내지원의 극과 극의 타격은 여전하다. 실상가상 보이지 않는 실책까지 연달아 나왔다. KIA에게는 적절한 시기에 찾아온 휴식이다. 선발진을 재조정하고 초반 바쁘게 달려왔던 주축들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전력을 더할 시간도 별 없다. 개막 하루 만에 부상병이 됐던 김주찬이 20일 1군에 재합류하면서 타선에 힘을 더해준데 이어, 팔꿈치 부상으로 시즌 출발이 늦어졌던 좌완 심동섭과 우완 박지훈이 2군 경기를 소화하면서 복귀를 앞두고 있다. 휴식이 끝나면 운명의 주말을 보내야 한다. KIA 만큼 고민 많은 LG와의 대결이다.

■ 프로야구 중간순위 (4월 21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넥센	16	11	5	0	0.688	0.0
2 SK	17	11	6	0	0.647	0.5
2 NC	17	11	6	0	0.647	0.5
4 롯데	16	8	7	1	0.533	2.5
5 두산	16	8	8	0	0.500	3.0
6 KIA	19	8	11	0	0.421	4.5
7 삼성	15	6	9	0	0.400	4.5
8 한화	18	7	11	0	0.389	5.0
9 LG	16	4	11	1	0.267	6.5



박지훈 심동섭
있는 상황, 휴식이 효과를 보여줘야 하는 KIA와 반전을 이뤄야 하는 LG, 두 사령탑에게는 운명의 주말이다. 한편 안치홍의 거포 본능이 되살아나면서 꿈틀거리는 KIA의 파워, KIA가 이번 주 6개의 홈런을 더하면 역대 두 번째로 3300홈런을 채우는 팀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선수들 "세월호 참사 아픔 함께합니다"

선수협, 5천만원 성금

프로야구선수협회가 5000여만 원을 모금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지원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수협회는 피해자를 돕고자 5000만 원가량의 성금을 모았고, 선수 애장품 자선경매를 통해 모금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선수들은 경기장에서는 실종자들의 무사 생

환을 기원하고 피해자들을 애도하는 표시를 하기로 했다. 또 세리머니 등 국가적 재난 극복 노력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자제하기로 했다. 선수협회는 "침몰 사고에서 살아 돌아온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비극을 잊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둘 것"이라며 "야구팬들도 사고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중학생 야구대회 오늘 개막

2014 광주 춘계 중학교 야구대회가 22일 무등경기장에서 개막한다. 2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대회는 제61회 전국중학교야구선수권대회 예선을 겸해 열리며 동성·총장·진흥·무등중 등 광주지역 중학교 4개 팀이 참가한다. 22일 오전 10시 총장중과 동성중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4개 팀은 리그전으로 대결을 갖는다. 우승팀은 7월에 열리는 전국중학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 대표로 출전한다. 5·6회 7점 차이 경우 콜드게임이 적용되며 승률이 동률일 경우 추첨으로 우승팀을 가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